2019년

파키스탄
카라치
출장자료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s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목 차 】

Ⅰ. 국가일반 ····· 01

Ⅱ. 경제 ····· 08

Ⅲ. 무역 · 투자 ····· 18

Ⅳ. 비즈니스 참고정보 ····· 26

Ⅴ. 기타 유용한 정보 ····· 32

Ⅰ. 국가일반

1. 국가개요

❑ 일반사항

국 명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위 치	인도대륙 북서부위치 동경 61도-76도, 북위 23도-37도 동쪽에 인도, 북서쪽에 아프가니스탄, 서남쪽에 이란, 북서-북동쪽으로 중국, 타지키스탄과 접함.
면 적	796,095 ㎢(한반도 면적의 3.6 배)
기 후	아열대 기후로 고온 건조
수 도	이슬라마바드(Islamabad)
인 구	2억 96만 명
주요도시	카라치(Karachi): 23,500천명, Sindh주도, 상공업도시 라호르(Lahore): 8,647천명, Punjab주도, 공업 교육도시 이슬라마바드(Islamabad): 658천명, 파키스탄 수도 파이잘라바드(Faisalabad): 2,808천명, Punjab주 소재 섬유도시 라왈핀디(Rawalpindi): 2,377천명, Punjab주 소재 물탄(Multan): 1,928천명, Punjab주 소재 구즈란왈라(Gujranwala): 1,514천명, Punjab주 소재 하이데라바드(Hyderabad): 1,496천명, Sindh주 소재 페샤와르(Peshawar): 1,345천명, KPK주 북서부 변경지역 소재 퀘타(Quetta): 826천명, Balochistan주 소재 * 2017년 파키스탄 인구 총조사 기준
민족(인종)	아리안족, 드라비다족, 희랍족, 터키족, 페르시아족, 아프간족, 아랍족, 모갈족 등 다양한 종족으로 구성돼 있으나 인도 아리안계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음. 종족 간 대립은 심각하지 않으나 경쟁의식과 자아의식이 강하고 지방별 언어 및 풍습이 상이함.
언 어	- 공용어: 우르두어(Urdu), 상용어: 영어 - 공문서는 영어로 작성 - 지역별로 펀잡어, 신드어, 푸쉬트어, 발루치어 등 지방 언어가 있으며, 같은 지방인 들끼리는 지방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일반적. 국민 전체 문맹률은 47%에 달함.
종 교	이슬람교 96.28%(수니: 80%, 시아: 20%), 기독교 1.59%, 힌두교 1.6%, 기타 0.53%
건국(독립일)	1947년 8월 14일
정부형태	연방공화국
국가원수	아리프 알비(Arif Alvi) 대통령(2018년 9월 9일 취임)
총리(실권자)	임란 칸(Imran Khan) 총리(2018년 8월 18일 취임)
입법부	상하양원제(상원 100석/임기6년, 하원 342석/임기5년)
정 당	헌법 개정(2002년 4월)과 2008년 2월 총선을 통해 PPP, PML-N, PML-Q, MMA, MQM 등의 정당에서 의원 배출로 공식 정당활동 보장
정부성향	비동맹 중립, 이슬람온건노선 표방

자료원: Economic Survey, IMF, 파키스탄 통계청, 무역관 조사 종합

❑ 경제지표

GDP	3,069억 달러
GDP 성장률	3.5%
1인당 GDP	1,516 달러
실업률	5.9%
물가상승률	7.0%
화폐단위	파키스탄 루피(Pakistan Rupee, PKR)
환 율	US$ 1 = Rs 157 * 2019년 8월 기준
외 채	1,058억 달러
외환보유고	148억 달러
회계연도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 2017/18 회계연도의 경우, 2017년 7월~2018년 6월까지를 의미
교역규모	- 수출: 200억 9,900만 달러(2018년 7월~2019년 4월 기준) - 수입: 440억 3,300만 달러(2018년 7월~2019년 4월 기준)
교역품	- 수출: 면사, 면직물, 의류, 석유제품, 스포츠용품, 카펫, 쌀 등 - 수입: 원유, 식료품, 기계류, 화학, 운송장비, 철강 등

주: 2018/19 3월말 기준 (파키스탄의 회계연도는 7월부터 차년도 6월까지)

자료원: BOI, State Bank of Pakistan, Economic Survey of Pakistan, Trade Development Authority, IMF 종합

❑ 한-파키스탄 관계

체결협정	무역협정, 해운협정, 경제기술과학협력 및 무역증진에 관한 협정, 과학 및 기술협정, 문화협정, 이중과세 방지협정, 투자보호 협정, 항공협정
교역규모	2018년 우리나라의 수출액: 10억 1,800만 달러(1.1% 증가) 2018년 우리나라의 수입액: 3억 7,900만 달러(19.7% 증가)
교 역 품	- 우리나라의 수출품목: 합성수지, 윤활유, 기계류, 철강, 전자제품 등 - 우리나라의 수입품목: 석유제품, 섬유사, 동제품, 면직물, 가죽, 어류 등
교 민	약 800명(주재원, 선교사 등)

자료원: 무역관 조사, KITA, 한국수출입은행, World Trade Atlas 종합

2. 정치 사회 동향

❑ 정치 사회 동향

- 파키스탄은 내각책임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1985년 지아 울-하크 (Muhammad Zia-ul-Haq) 대통령이 제8차 수정 헌법을 통해 대통령에게 총리 해임권과 의회 해산권을 부여하는 등 대통령 권한 강화 규정을 추가했다. 이로 인해 파키스탄은 1990년, 1993년, 1996년 세 차례에 걸쳐 정권마다 총리가 임기 5년을 마치지 못하고 3년 만에 물러나는 정치적 격동을 겪어 왔다. 이처럼 총리와 대통령이 서로 권력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정치 불안이 계속되어 왔고, 정책 수행의 불연속성과 국가 위험도를 높이는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 1999년 10월 무혈 쿠데타에 성공한 무샤라프(Pervaiz Musharraf) 당시 육군참모총장은 나와즈 샤리프(Muhammad Nawaz Sharif) 총리를 국외로 추방하고 최고 행정수반 통치 체제라는 비정상적인 정국 운영을 거쳐 2001년 10월 대통령직에 올랐으며 2002년 4월 헌법 개정 국민 투표와 11월 의회 선거를 통해 자말리(Mir Zafarullah Khan Jamali)를 총리로 선출하여 내각을 구성했다.

- 무샤라프 대통령은 2007년 10월 6일, 의회의 간접 선거로 실시된 대선에서 압도적 표차로 재집권에 성공했으나 이에 반발한 야당이 육군참모총장을 겸하고 있는 무샤라프의 입후보 자격에 대해 대법원에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무샤라프 대통령은 동 헌법 소원의 판결 예정일을 하루 앞둔 2007년 11월 3일, 전국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헌법 효력을 중지시켰으며 이에 대한 야당의 반발로 사회 불안이 지속됐다. 2008년 2월 총선이 실시되고 PPP, PML-N 등 야당이 승리, 연정합의에 의한 정부가 구성된 후 2008년 8월 무샤라프 대통령이 사임했다.

- 무샤라프 전 대통령의 사임 이후 2008년 9월 6일 의회의 간접 선거로 실시된 대선에서 2007년 암살된 베나지르 부토(Benazir Bhutto) 전 총리의 남편인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Asif Ali Zardari)가 신임 대통령으로 당선됐으며 유사프 라자 길라니(Yusuf Raza Gilani)가 총리직을 역임했다.

- 자르다리 정부는 집권 여당인 PPP정당의 열악한 정치적 지지 기반에도 불구하고 야당인 MQM 정당과의 연정으로 과반수를 확보하며 정국의 안정을 유지했다. 그러나 2011년 1월 유류세 인상을 계기로 MQM 정당 소속 장관들이 내각에서 사퇴하는 등 위기를 겪기도 했다.

- 파키스탄 내 탈레반의 테러활동도 끊이지 않고 있으며 2010년 12월 카라치 시내의 경찰수사본부 폭탄테러, 2011년 3월 ISI 파이잘라바드 지부 차량폭탄테러, 페샤와르 북부 마타니의 장례식장 폭탄테러 등을 자신을 소행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2014년 12월에는 탈레반의 페샤와르 학교 테러로 150명의 학생들이 숨지면서 대내외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2018년 상반기에도 퀘타(1월), 라호르 외곽(3월) 등 각지에서 크고 작은 폭탄테러가 발생했으며 이 또한 탈레반 분파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 최근에는 비교적 후방지역으로 인식되어 온 파이잘라바드와 카라치도 테러에 직접 노출되는 등 테러공격의 전-후방이 따로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파키스탄 최대 상업도시인 카라치에서는 종족간 정파간 갈등이 뿌리깊어 연일 폭력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 카라치에는 기존의 신드족(PPP당)과 인도 유민인 모하지르족(MQM당) 간 상권 및 토지소유권 등을 둘러싼 뿌리 깊은 갈등이 계속됐다. 여기에다 대탈레반 군사작전을 피해 북에서 무장세력이 대거 카라치로 이동하여 파슈툰족(탈레반 주력을 이루는 부족) 거주지에 은신하고 있으며 알카에다와 연계하여 파키스탄에서 수시로 자살폭탄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 2013년 5월 치러진 총선에서는 전 총리인 나와즈 샤리프가 이끄는 파키스탄 무슬림리그(PML-N)가 342석 중에서 여성 및 소수종교 할당 의석을 제외한 272석 중 127석을 확보하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이는 건국 이래 최초로 이룬 민주적 정권 교체다.

- 한편, 2013년 9월 8일에는 파키스탄 역사상 최초로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자르다리 대통령의 후임으로 의회에서 전체 702표 중 432표를 얻은 맘눈 후세인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나와즈 샤리프 정부의 구성이 완성됐다.

- 다만, 나와즈 샤리프 총리는 이른바 '파나마 페이퍼'로 불리는 자녀의 해외자산 은닉 혐의로 2017년 7월 파키스탄 대법원으로부터 파면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파키스탄의 정치지형이 급변했으며 일단 여당 내에서 샤히드 하칸 압바시(Shahid Khaqan Abbasi)가 임시 총리로 선출됐다.

- 이후 2018년 7월 총선을 통해 파키스탄정의운동당(PTI) 소속 임란 칸(Imran Khan)이 새로운 총리로 선출되었으며, 2018년 9월 상·하원 의원과 주 의회 의원들이 참여한 투표에서는 13대 대통령으로 아리프 알비(Arif Alvi)가 선출되었다.

❑ 대외 관계

○ 대인도 관계

- 카슈미르 문제 및 대 인도 관계가 파키스탄 외교 정책의 핵심으로 파키스탄은 국제 여론을 환기시켜 카슈미르 지역 주민 투표를 실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UN, 비동맹회의 등 국제사회에서 카슈미르 국경 분쟁을 이슈화시켜 국제 사회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 인도와의 카슈미르 분쟁은 1998년 핵실험 이후 2002년 말까지도 상호 총격전이 벌어지는 등 악화됐으나, 2003년 양국 간의 휴전 협정을 체결해 분쟁을 종식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그동안 끊겼던 항공 운항을 2004년 1월부터 재개했고 2005년 10월 발생한 대지진과 관련 카슈미르 지역에서 양국 공동 구조활동을 펼치는 등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개선 추세에도 2008년 11월 인도의 금융/문화 중심지인 뭄바이 폭탄테러로 양국 관계는 다시 복잡한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 2012년 2월 파키스탄에서 열린 양국 상무장관 회의에서 남아시아 자유무역협정(SAFTA)과 관련 수입이 제한되는 민감 품목 수량을 줄이기로 합의했으며, 인도는 파키스탄과의 무역활성화를 위해 254개 제품을 민감 품목에서 제외했다.

- 2012년 4월 파키스탄 상무장관의 인도 방문 시 인도는 파키스탄의 대인도 투자금지를 해지하기로 했으며, 파키스탄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인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2012년 9월 인도 외무장관이 파키스탄을 방문해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양국 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비자 발급을 보다 편리하게 하는 비자협정을 체결했다.

- 2015년 12월에는 인도 모디 총리가 파키스탄을 전격 방문해 샤리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동 회담에서 양국 총리는 경제협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논의를 진행했으며, 향후 양국관계 개선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 그러나 2016년 9월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에서 인도군의 포격으로 파키스탄군 2명이 사망하면서 양국 관계는 다시 경색 국면에 접어들었다. 인도측은 테러범의 침투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언급했으나 파키스탄은 이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면서 국경분쟁이 다시금 고조되었다.

- 2018년 7월 신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임란 칸 총리는 대인도 갈등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방적 입장을 유지해 왔으나, 2019년 2월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지역에서 발생한 폭탄테러 사건으로 양국 간 갈등이 다시 촉발되었다.

- 인도는 공군을 동원해 파키스탄 일부 지역을 폭격하였고 파키스탄은 인도 전투기를 격추시켜 보복하는 등 무력 충돌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이후 파키스탄의 영공 폐쇄 조치에 따라 파키스탄 근처를 운항하는 항공편들이 대거 취소 및 지연되는 사건이 있었다.

○ **대아프가니스탄 관계**

- 파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원 교류 및 교역을 원활히 하고, 이들 국가들로의 해상 운송 루트로서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의 안정 및 친 파키스탄 정책 유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통적으로 아프가니스탄과의 유대 관계는 형제국과 같이 긴밀한 편이다.

○ **대중국 관계**

- 1996년 12월 1일 장쩌민 국가 주석이 파키스탄을 방문해, 양국 경제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특히 핵개발 기술 협력 강화에 합의(평화적 목적)했다. 중국은 인도 견제를 위해 전략적으로 친 파키스탄 외교를 펴고 있으며, 파키스탄에 대한 다양한 경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 한편, 무샤라프 대통령은 2006년 2월 중국을 공식 방문해 후진타오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교역 및 협력 확대에 합의했으며, 2006년 11월 이루어진 후진타오의 답방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 양국 간 FTA는 2007년 7월 발효됐으며, 이를 계기로 양국 간 교역량이 매년 두 자리 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다만, 중국 제품이 파키스탄 수입 시장을 전 방위로 잠식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파키스탄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다.

- 파키스탄과 중국 간 관세 추가 인하를 골자로 하는 2단계 FTA (CPFTA Phase-II)는 2019년 4월 28일 발효되었으며, 중국은 파키스탄 품목 90%에 대해, 파키스탄은 중국 품목의 65%에 대해 점진적으로 무관세 수입을 양허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 중국은 2015년 4월 시진핑 주석의 파키스탄 방문을 계기로 460억 달러 규모의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프로젝트(CPEC) 투자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투자 규모가 520억 달러까지 증가하였으나 2017~2018년 사이 프로젝트 지연 및 자금 지원 중단 등 문제로 인해 CPEC 전면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 그러나 2019년 현재 중-파키스탄 경제회랑(CPEC)은 2단계로 진입한 상태이며, 인프라 중심의 투자를 시행한 1단계와 다르게 특별경제구역(SEZ) 활성화를 통한 양국 간 산업협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Ⅱ. 경제

1. 경제동향 및 전망

❑ 주요 경제동향

- 파키스탄의 1980년 이래 13번째의 IMF 구제금융 협상이 2019년 7월 확정되어, 향후 IMF는 39개월간 총 60억 달러를 파키스탄에 지원할 예정이다. IMF 구제금융 조건으로는 2019/20 회계연도 예산계획 시 GDP의 0.6%로 재정적자 축소,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 자율변동환율제 도입, 긴축통화정책(이자율 인상), 에너지(전력) 요금 인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 2018/19 회계연도 해외 차관 규모는 160억불로 파키스탄 역사 72년 만의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중 55억불은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로부터, 67억불은 중국으로부터 받아온 차관이다. 동 회계연도 기준 경상수지 적자는 전년 동기대비 32% 하락한 135억불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해외로부터의 송금 증가와 수입 감소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9/20 회계연도 경상수지 적자 목표인 85억불 달성을 위해서는 수출 증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 파키스탄 재무부에 따르면 CPEC 대규모 인프라 투자, 에너지 공급 개선, 3.9%의 소비자 물가(4년 연속 목표 수준 이하 유지), 민간소비 증가에 기인하여 2017/18 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은 13년만의 최대인 5.8%를 기록했다(추후 5.5%로 조정). 그러나 5년만의 최대 재정적자(세수부족), 만성적 무역적자, 누적된 대외부채, 역대 최대 경상수지 적자 등이 외환 고갈을 야기해 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 외국인 투자유치 규모는 2018/19 회계연도 기준 17.3억 달러로 전년대비 50% 감소했으며, 작년 초부터 지속된 루피화 가치 평가절하로 인한 물가 상승 및 수입가격 인상, IMF 협상으로 인한 불확실성 등이 감소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화학, 음료, 자동차 등의 부문은 악조건 속에서도 전년대비 투자유치 규모를 유지하였다.

❑ 경제 전망

- 2018/19 회계연도에는 3%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전년대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8월 현재 파키스탄 중앙은행은 3.3%, 세계은행은 3.4%, IMF는 2.9%로 전망하고 있다. 2019/20 회계연도의 경제성장률은 IMF와 세계은행 모두 2.7%로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향후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본격화되면서 긴축 재정 및 통화정책으로 단기적 경기 위축, 수입 부담증가(달러대비 루피화 환율 상승, 경상적자 감소 목표 등) 등으로 경기가 뚜렷한 조정국면으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IMF 구제금융 조건의 차질없는 이행 시, 경제의 불확실성 감소로 그 동안 경색되었던 비즈니스가 정상화되고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입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IMF에 따르면 2019/20 회계연도 달러대비 루피화 평균 환율은 172.53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율도 약 1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IMF 등 전문가들은 그 동안 과대평가되어 왔던 달러대비 루피화 가치는 소비·투자 확대(총수요)를 통한 단기 성장효과를 가져왔으나 재정적자, 부채증가, 수입증가, 외환보유고 고갈 등의 거시경제 불안의 원인이 되어 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루피화 가치 하락은 수입시장을 경색시켜 우리 수출기업의 대파키스탄 수출 확대에 애로로 작용할 전망이다.

- 그러나 파키스탄 중앙은행은 2019년 7월 17일 정책금리를 13.25%로 추가 인상하는 등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조치를 시행했다. 파키스탄 중앙은행 내 금융정책위원회(MPC: Monetary Policy Committee)는 2019/20 회계연도 물가상승률을 11~12%로 예상하고 있으나, 2020/21 회계연도에는 물가 상승기조가 다소 완화되면서 금리도 다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2019/20 회계연도 경제성장율은 시장 안정에 대한 긍정적 신호, 농업 무문에서의 성장 회복과 수출 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효과 등이 가시화 되면서 3.5%로 다소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주요 산업 동향

❑ 섬유/패션

○ 정책 및 규제

- 섬유산업은 2017/18 회계연도 기준 파키스탄 GDP의 8.5%, 파키스탄 대외 수출의 54.0%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고용의 38%를 창출하는 국가 주력 산업에 해당한다.

- 파키스탄 정부는2013년 당시 섬유산업 성장 및 수출촉진5개년 계획으로 Textile Policy 2014-19를 발표하고 수출액 및 부가가치 2배 향상, 일자리 300만개 창출 등을 목표로 내세웠다.

- 목표 달성 방안으로 섬유산업에 경쟁우위를 부여하는 저임금 노동력 등과 같은 요소의 활용도를 높이고 생산 과정에 ICT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산업 전반에 걸쳐 밸류체인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 주 내용이다.

Textile Policy 2014-19 주요 내용

① 섬유 제품 100만 베일 당 부가가치를 10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향상
② 섬유 제품 총 수출액을 연 130억 달러에서 260억 달러로 향상
③ 섬유 기계 및 제조기술 분야에 50억 달러 투자
④ 전체 섬유 제품 생산량 중 혼합섬유 활용 비중을 14%에서 30%로 향상
⑤ 의류부문의 경우 혼합섬유 활용 비중을 28%에서 45%로 향상
⑥ ICT 기술 적용을 위한 계획 수립
⑦ 생산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기술 적용 등 국제 환경 관련 협약 준수 노력
⑧ 기존 섬유산업 클러스터 강화 및 신규 클러스터 개발
⑨ 근로자 대상 전문적인 직업 훈련 도입
⑩ 300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노력

자료: Ministry of Textile Industry

- 2019/20 회계연도 파키스탄 연방 예산계획에 따르면 섬유를 포함한 가죽, 카페트, 의료 수술도구, 스포츠 용품 5개 수출 업계는 원재료 수입 시 적용되던 일반판매세(GST) 면제 혜택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

- 원재료 수입 시 우선 일반판매세에 해당하는 3%의 Value Addition Tax를 납부하고 이후 가공품 수출 시 환급 받는 구조로 변경될 예정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영세 업체들 위주로 해당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 또한 6%의 원천세(WHT)가 향후 추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원재료 및 생산설비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섬유 업계는 향후 수출가격 경쟁력 등에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이는 2019년 7월초에 확정된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따라 파키스탄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한 세금 특혜 축소 조치를 감행하고 있다.

○ 주요 이슈

- 현지 의복 제작에 주로 사용되는 폴리에스터 원사의 경우, 파키스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품목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품질도 좋지 못해 전체 수요량의 약 7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 파키스탄 섬유업체 Gul Ahmed에 따르면 면섬유, 염료 등 품목도 각각 전체 수요량의 약 67%, 87%에 해당하는 비중을 중국 및 한국 등 해외로부터 수입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 2018년 초부터 가속화된 파키스탄 루피화 하락 및 이에 따른 수입 원재료 가격 상승은 현지 섬유산업의 장점 중 하나인 가격 경쟁력을 현저히 악화시키고 있다.

- 섬유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파키스탄 자체 원재료 생산력 확보는 필수적이나, 원재료 생산 업계를 위한 직접적인 인센티브는 제공되고 있지 않다.

- 또한 파키스탄 섬유산업부에 따르면 현지 섬유 업계는 매주 평균적으로 약 8~10시간의 정전과 약 2~4 시간의 가스 공급 중단을 겪고 있다.

- 이로 인해 전기로 가동되는 중소형 방적기 및 가스로 가동되는 대형 방적기의 생산량이 감소되어 왔다. 이는 2016/17 회계연도 기준 35억 달러에 달하던 섬유 완제품 수출액이 2017/18 회계연도에는 20억 달러로 하락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 2019년 3월 카라치에서 개최된 섬유산업 전시회 Textile Asia에서는 Geared Motor, Transmitters 등 전력 제품을 위한 별도 전시공간이 마련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는 만성적인 에너지 공급 부족으로 자가 발전 역량을 갖추기 위한 섬유 업계의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중국 기업들의 현지 시장 진출도 주요 이슈 중 하나다. PCJCCI (Pakistan-China Joint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의 회장 Mr. Naveed에 따르면 최근 중국 기업들은 섬유, 봉제 및 액세서리 생산 공장을 파키스탄 펀자브 주로 이전하는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 주 목적은 대미 의류수출 활로 확보 등으로 보이며, Mr. Naveed는 이와 관련해 중국 기업들의 현지 기술 이전, 합작투자 등으로 파악되는 투자규모가 7,000만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언급했다.

○ **산업의 수급현황**

- 2016/17 회계연도 기준 설비투자액은 5억 5600만 달러로서 직전 회계연도 대비 약 20.6%의 증가를 보였다. 이후 2017/18 회계연도까지 5억 달러 이상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 생산설비 확충 이후 2017/18 회계연도에 원재료 수입액과 섬유 제품의 전체 수출액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 섬유 생산 항목의 경우 면사 및 의류 품목의 통계치만 활용 가능한 상태이다. 내수 소비항목의 경우 면섬유에 대한 통계치만 확보 가능하여 파키스탄 전체 소비 수치가 아닌 점을 감안해야 한다.

파키스탄 섬유산업 통계
(단위: 백만 달러)

	2015/16	2016/17	2017/18
설비투자액	461.51	556.83	545.11
생산	371,000	373,636	371,341
- 면사	285,000	287,561	285,240
- 의류	86,000	86,075	86,101
소비(면섬유)	231,615	231,456	227,675
수출	12,756	12,453	13,376
수입	856	1,489	1,576

자료: Ministry of Finance

❑ 자동차/운송장비

○ 정책 및 규제

- 자동차 산업은 2017/18 회계연도 기준 파키스탄 GDP전체의 2.8%, 제조업 분야의 20%를 차지하며 약 18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력 산업에 해당한다.

- 파키스탄 정부는2015년 당시 자동차 산업 성장 및 투자 촉진 계획으로 Automotive Development Policy(ADP) 2016-21를 발표하고 2021년 까지 자동차 산업의 GDP 기여도를3.8%로,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30%로 늘리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중이다.

- 동 정책은 2018년 25만대에서 2021년까지 52만대로 늘리는 생산목표를 담고 있으며 상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ADP 2016-21의 정책목표

차종	목표(대수)	차종	목표(대수)
Cars / Vans / Jeeps	350,000	Buses	2,200
Light Commercial Vehicles (LCVs)	79,000	Tractors	88,000
Trucks	12,000	Motocycles	2.5M

자료: ADP 2016-21

- 주 내용은 국내외 기업의 신규 투자에 대한 무관세 설비수입, 부품 수입관세 인하, 로컬 및 수입산 부품간 관세 차별 완화, 소비자 보호 정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신규 진입자(Green Field)와 기존 투자자(Brown Field)에 대해 아래의 표와 같이 인센티브를 구분해 놓은 것이 특징이다.

ADP 2016-21 주요 내용

Green Field (신규 진입자)	① 완성차 수입 시 100대까지 50% 관세율 적용 (기존 100%) ② 차량 생산 플랜트 및 기계류 일회성 면세 수입 허용 ③ 5년간 현지 생산 가능한 부품에 대해 25% 관세율 적용 (기존 50%) ④ 5년간 현지 생산 불가한 부품에 대해 10% 관세율 적용 (기존 32.5%)
Brown Field (기존 투자자)	① 3년간 현지 생산 가능한 부품에 대해 25% 관세율 적용 (기존 50%) ② 3년간 현지 생산 불가한 부품에 대해 10% 관세율 적용 (기존 32.5%)

자료: Board of Investment

○ **최신 기술 및 동향**

- 1인당 국민소득이 1,500달러에 불과한 파키스탄 시장 공략을 위해 부품 국산화를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지 부품 협력사의 낮은 기술력과 노후화된 장비 및 그로 인한 품질 저하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 특히 고부가가치 부품인 전장부품, 엔진 및 트랜스미션 등을 현지에서 제조하기에는 파키스탄 업체들의 역량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러한 부품 생산에 필요한 라이선스 기술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 Indus Motors Company(IMC, 도요타 OEM) 사의 Mr. Tariq Ali Khan(Director)에 따르면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현지에서 글로벌 OEM 들이 요구하는 품질 표준을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20여개의 글로벌 완성차 제조공장 설립을 위한 신규 및 재투자 프로젝트가 확대됨으로써 스즈키, 도요타 등 일본 브랜드 독점 구조가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품질 향상과 부품 국산화 제고를 위한 현지 기업과 해외 기업간의 기술협력 움직임은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 파키스탄 자동차 부품 및 액세서리 제조 협회(Pakistan Association of Automotive Parts and Accessories Manufacturers, PAAPAM)에 따르면 파키스탄 부품 국산화율은 승용차의 경우 55~70%, 모터사이클과 트랙터의 경우 90% 이상이며, 트럭과 버스 분야의 경우 40% 정도이다.

○ 주요 이슈

- 인구 1,000명당 13대의 낮은 자동차 보유율에도 불구하고 일본 자동차 브랜드 중심의 독점으로 공급우위 시장의 병폐 누적되어 왔다. 가령, 다른 국가에 비해 동종 모델의 가격대비 품질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 현지에서 판매되는 완성차의 경우 2019년 5월 판매량 기준 스즈키 및 도요타, 혼다에서 생산되는 차량이 전체의 97%에 해당할 정도로 일본 제품의 의존도가 높다.

- 세부적으로 스즈키가 54%, 도요타가26%, 혼다가 17%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며 그 외 3%는 기타 업체에서 트럭 및 버스 등 판매를 통해 기록한 수치이다.

- 참고로 동 기간 일본 OEM 3사의 차량 판매 비중은 Hatchback 40%, 세단 39%, 픽업트럭 10%, VAN 8%, SUV 3%로 나타난다.

- 스즈키는 Hatchback 및 LCV 분야 위주로 저가 정책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요타 및 혼다는 세단 분야 선점을 위한 경쟁을 이어오고 있다.

- 정부는 투자유치를 통한 경쟁 활성화로 시장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섬유 및 농업 외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동차 산업을 강조하고 있다.

- 자동차 산업 육성정책(ADP 2016-21)을 계기로 신규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의 현지 제조공장 설립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 일본 자동차 중심의 시장구조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다.

- 이러한 경쟁 확대에 대비하여 기존 시장을 독점해 온 일본 자동차 기업도 품질 개선 및 신모델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벤더 기업이 해외 기업과의 기술협력을 적극 모색할 것으로 주문하고 있다.

○ **산업의 수급현황**

- 파키스탄 자동차 제조 협회(Pakistan Automotive Manufacturer Association, PAMA) 통계에 따르면 현지 차량 생산량은 과거 5년간 지속 증가 중이며, 현대니샤트의 Mr. Sohail Nawaz는 Light Vehicle 기준 현지 생산량이 2019년 30만 대에서 2024년 40만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 향후 파키스탄 전체 인구의 약 40% 정도가 개인 차량을 보유할 수 있는 중산층이 될 것을 가정할 경우, 파키스탄 자동차 시장 규모는 2025년까지 연간 50만대 이상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 파키스탄 자동차 판매 협회(All Pakistan Motor Dealers Association, APMDA)의 Mr. H.M. Shahzad(Chairman)는 파키스탄 내 연간 승용차 및 경상용차 판매량은 약 32만대 정도이며 이 중 25만대는 현지 생산 차량, 나머지 70,000대는 수입 차량이라고 밝혔다.

- Alsons Autoparts사의 Mr. Nadeem Baig(Development Manager)에 따르면 파키스탄 내에서 현재 소수 업체만 서스펜션 부품 생산이 가능한 상황이다. 배터리 및 케이블 등 전자 부품의 경우 제대로 생산하는 현지 업체가 없는 상황이다.

- 이 외에도 충격 흡수재, 판금 부품, 얼터네이터 등 품목도 현지 생산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한국 기업들이 기술지원 및 합작투자를 고려하기에 적합한 분야로 평가된다.

Ⅲ. 무역 · 투자

1. 수출입동향

❑ 무역 동향

- 2017/18 회계연도 기준 대외수출은 247억 달러, 수입은 565억 달러를 기록, 무역적자 규모는 318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시현했다.

- 2018/19 회계연도 기준 무역적자는 281억 달러 수준으로, 대외교역 위축으로 인해 전년대비 완화된 모습을 보임.

- 무역적자 완화는 환율인상, 수입억제, 소비위축 등에 따른 단기적 결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산업기반이 미흡하여 수입부담 증가는 실물경제에 중장기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 파키스탄 대외 수출입 동향 >

(단위: 백만달러)

구분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수출액	24,090	21,972	22,003	24,768	24,222
수입액	41,357	41,225	48,682	56,592	52,389
교역규모	65,447	63,197	70,685	81,360	76,611
무역수지	-17,267	-19,253	-26,679	-31,824	-28,167

자료원: State Bank of Pakistan / 주: 2018/19 회계연도 통계는 4월까지 누계

❑ 품목별 수 · 출입 동향

- 2018/19 회계연도 기준 최대 수출품목인 섬유제품은 미미한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절반에 가까운 주력 수출 품목은 마이너스 증가율를 시현 중이다.

< 주요 품목별 수출액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5/16	2016/17	2017/18	2018/19	증가율
섬유제품	12,756	12,453	13,376	13,564	1.41
식품 및 농수산품	3,722	3,609	4,817	4,638	-3.72
기타 제조업 제품	3,804	3,651	4,133	3,811	-7.79
화학 및 의약품	1,052	1,110	1,389	1,222	-12.02
석유제품 및 석탄	450	412	574	675	17.60
스포츠용품	539	551	551	518	-5.99
가죽제품	487	486	614	503	-18.08
수술용 의료기기	423	395	441	437	-0.91
시멘트	346	242	183	291	30.49
엔지니어링 제품	214	182	233	237	1.72
신발	67	75	87	100	14.94
카페트, 매트	103	93	84	77	-8.33

자료원: State Bank of Pakistan

- 2018/19 회계연도 기준, 품목별 수입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다.

< 주요 품목별 수입액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5/16	2016/17	2017/18	2018/19(	증가율
일반기계	7,096	7,410	8,784	6,767	-22.96
석유제품	5,098	6,379	6,776	6,030	-11.01
원유	2,569	2,764	4,310	4,914	14.01
식품	4,600	5,417	5,501	4,749	-13.67
플라스틱소재	1,791	1,874	2,311	2,272	-1.69
아연 및 철강	2,094	2,092	2,523	2,007	-20.45
수송기계	1,263	1,774	2,182	1,934	-11.37
팜유	1,600	1,783	1,908	1,661	-12.95
전기기기	1,650	1,324	1,800	1,288	-28.44
섬유제품	856	1,489	1,536	1,242	-19.14
통신장비	1,201	1,023	1,396	1,172	-16.05
철강스크랩	836	969	1,332	1,153	-13.44
비료	734	572	787	772	-1.91
발전기계/장비	1,356	1,589	1,576	731	-53.62
항공기, 선박	536	606	939	291	-69.01

자료원: State Bank of Pakistan

❑ 국가별 수·출입 동향

- 2018/19 회계연도 기준 전체 수출의 25% 수준을 차지하는 미국(16.7%)과 중국(7.6%) 대상 수출액은 직전 회계연도 대비 각각 4.3%와 5.7%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 특히 최근 3년간 기간 대 이탈리아, 네덜란드, 방글라데시 수출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파키스탄의 주요 수출국가 >

(단위 : 백만달러, %)

국가	2016/17	2017/18	2018/19	증감율	비중
미국	3,658	3,869	4,037	4.34	16.67
중국	1,624	1,752	1,851	5.65	7.64
영국	1,619	1,774	1,756	-1.01	7.25
독일	1,237	1,365	1,305	-4.40	5.39
아프가니스탄	1,133	1,494	1,192	-20.21	4.92
UAE 두바이	934	1,137	1,117	-1.76	4.61
스페인	803	942	928	-1.49	3.83
이탈리아	667	769	804	4.55	3.32
네덜란드	643	779	947	21.57	3.91
방글라데시	623	727	743	2.20	3.07

자료원: State Bank of Pakistan

- 2018/19 회계연도 기준 중국, 두바이, 싱가포르 등 등 주요 수입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대부분 감소세를 보였다.

< 파키스탄의 주요 수입국가 >

(단위 : 백만달러, %)

국가	2016/17	2017/18	2018/19	증감율	비중
중국	10,077	11,472	10,161	-11.43	19.40
UAE 두바이	4,940	6,034	5,925	-1.81	11.31
싱가포르	4,056	4,471	3,326	-25.61	6.35
사우디아라비아	2,409	3,081	2,985	-3.12	5.70
미국	2,102	2,077	2,096	0.91	4.00
일본	1,696	1,876	1,524	-18.76	2.91
인도	1,688	1,816	1,594	-12.22	3.04
카타르	1,147	1,600	2,030	26.88	3.87
쿠웨이트	1,108	1,146	1,206	5.24	2.30
UAE Fujairah	1,338	1,410	1,069	-24.18	2.04

자료원: State Bank of Pakistan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 對파키스탄 수출입 동향

- 2018년 한-파키스탄 교역규모는 전년보다 5.5% 증가한 13.9억 달러로 수출증가는 1.1%에 그쳤으나, 수입 증가가 교역규모 증가를 견인했다.

- 수출은 역대 최대규모인 10.1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수입은 19.7% 증가한 3.7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 그러나 2019년 1~6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21.% 감소한 상황이며 수입액 또한 함께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파키스탄 연도별 교역현황

(단위: 백만달러, %)

연도	무역규모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2019(6월)	682	425	-21.0	257	-0.1	168
2018	1,397	1,018	1.1	379	19.7	638
2017	1,324	1,007	21.5	317	12.2	690
2016	1,112	829	4.9	283	-0.5	546
2015	1,075	790	2.6	285	-29.2	505

자료원: KITA 무역통계

ㅇ 주요 수출품목

- 2018년에는 승용차, 석유화학합성원료, 철강, 합성수지, 기타산업기계 등의 품목의 對파키스탄 수출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가운데 의약품, 건설중장비 등의 수출은 감소하였다.

- 2019년 6월 기준, 염료, 승용차, 농약, 의약품 등이 전년 동기대비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합성수지, 윤활유, 냉연강판 등 주력 수출품목 대부분이 두 자리 수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對파키스탄 20대 수출품목 (2019년 6월 기준) >

(단위: 천달러, %)

순번	코드	품목명	2018년		2019년 (6월)	
			수출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수출금액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	2140	합성수지	123,608	13.6	46,066	-38.7
2	1336	윤활유	108,214	1.4	32,598	-36.5
3	6133	냉연강판	68,271	60.2	25,059	-28.9
4	2211	염료	32,738	9.5	21,849	44.4
5	7411	승용차	621	172.5	20,509	5,771.2
6	2261	농약	7,925	1,197.1	18,193	229
7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55,035	1.4	17,402	-40.5
8	6261	아연괴및스크랩	41,129	7.9	16,135	-22.3
9	2262	의약품	24,233	-27.9	12,748	17.1
10	2130	석유화학합성원료	25,776	161.4	10,928	-7.1
11	7251	건설중장비	47,294	-33.3	10,702	-68.4
12	6134	아연도강판	24,638	-8.1	9,412	-31.7
13	7420	자동차부품	23,869	2.3	8,828	-39.2
14	6212	알루미늄조가공품	10,263	96.8	8,632	6
15	4490	기타섬유제품	15,910	-10.6	8,266	-8.6
16	4112	아크릴섬유	6,967	161.8	7,674	123
17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12,498	12.6	7,541	3.3
18	9701	무기류	29,668	106.5	5,630	-62
19	2512	고지	7,979	42	5,033	11.3
20	2150	합성고무	12,945	26	4,838	-28.6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순위는 2019년 6월 수출금액 순

○ 주요 수입품목

- 2018년에는 나프타, 주류, 직물 및 의류, 기타비금속광물, 채유종실, 기타 어류 등의 수입이 전년대비 증가했다.

- 2019년 6월 기준 나프타, 주류 등의 수입은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채유종실, 게, 기타가죽, 의류용 악세서리, 생활용품 등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눈에 띄게 증가했다.

< 對파키스탄 20대 수입품목 (2019년 6월 기준) >

(단위: 천달러, %)

순번	코드	품목명	2018년		2019년 (6월)	
			수입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수입금액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	1334	나프타	106,026	39.7	131,612	31.0
2	0157	주류	44,390	57.6	27,328	16.7
3	4331	순면직물	35,464	7.5	17,368	-2.6
4	4213	면사	31,090	-3.2	12,550	-26.6
5	4411	편직제의류	27,712	89.7	12,061	-11.8
6	1290	기타비금속광물	16,673	32.9	8,210	-15.9
7	0422	게	4,286	-32.2	7,007	93.6
8	0115	채유종실	4,720	32.2	4,866	913.7
9	3319	기타가죽	10,493	-25.8	4,478	18.4
10	4412	직물제의류	9,078	22.4	4,433	-15.6
11	0451	어육	8,282	-31.8	3,655	-35.8
12	5141	운동기구	5,972	1.5	3,028	-7.5
13	6221	동괴및스크랩	38,642	13.0	2,060	-94.1
14	8147	의료용전자기기	3,834	-1.7	1,756	-8.1
15	4490	기타섬유제품	3,830	-5.6	1,387	-37.9
16	4414	의류 악세서리	2,039	41.0	1,295	77.8
17	621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0	0.0	1,216	0.0
18	3311	소가죽	1,770	0.4	961	-6.4
19	5214	생활용품	1,249	1.5	831	45.9
20	0419	기타어류	2,739	60.9	802	-47.7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순위는 2019년 6월 현재 수입금액 순

3. 투자유치 동향

-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2018/19 회계연도 기준 17억 3,710만 달러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 43.8% 감소했다.

- 일본, 터키, UAE, 홍콩을 제외하고 주요 투자국인 중국, 영국, 미국, 네덜란드 등으로부터의 투자가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 최근 對파키스탄 직접투자 추이 >

(단위: 백만달러, %)

2015/16		2016/17		2017/18		2018/19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305.3	133	2,746.8	19	3,092.0	12.5	1,737.1	-43.8

자료원: Board of Investment, State Bank of Pakistan

< 주요 국가별 對파키스탄 투자 현황 >

(단위: 백만달러)

국가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중국	695.8	319.1	1,063.60	1,211.70	1,812.60	546.8
영국	157	169.6	151.6	215.8	307.5	185.2
미국	212.1	223.9	13.2	44.6	136.3	88.6
홍콩	228.5	136.2	93.3	17.2	4.1	130.1
스위스	209.8	-6.5	58	101.8	79.4	21.2
아랍에미리트	-47.1	213.6	109.7	120.5	10.9	102.5
이탈리아	97.6	115.4	105.4	60.5	56.6	51.9
네덜란드	5.5	-34.5	29.9	457.6	100.2	68.4
오스트리아	53.8	24.8	42.7	21.7	27.4	7.6
일본	30.1	71.1	35.4	57.7	59.8	117.3
터키	7.9	43.4	16.8	135.6	29.8	73.8
기타	47.6	-288.2	585.7	301.9	467.4	343.7
합계	1,698.60	987.9	2,305.30	2,746.80	3,092.00	1,737.10

자료원: Board of Investment

< 주요 산업별 對파키스탄 순투자 유입 현황 >

(단위: 백만달러)

산업구분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오일 & 가스	502	300.5	248.9	146	192.5	308.8
금융	71.4	282.2	1,159.20	700	400.3	286.5
섬유	192.8	256.4	289	296.1	49.7	76.8
무역	28.8	53.5	46.7	465.9	142.6	76.3
건설	106.3	94.6	-14.1	533.3	708.5	421
전력	2.7	6.2	70.2	57.6	997	-253.6
화학	94.9	60.3	88.5	5.4	48.9	129.1
수송기계	-3.2	50.5	26.8	32.7	56.9	35.2
통신	53.1	64.3	46.2	48.1	112.9	-52.9
기타	649.8	-180.6	343.9	461.6	382.7	709.9
합계	1,698.60	987.9	2,305.30	2,746.80	3,092.00	1,737.10

자료원: Board of Investment

Ⅳ. 비즈니스 참고정보

1. 시장특성

❑ 시장 규모

- 2018년 기준 파키스탄 총 인구는 약 2억 96만 명으로 거대 내수시장을 확보하고 있다. 중산층 비중은 약 40%로 추정되며, 이는 약 8,000만 명으로 독일 총 인구와 맞먹는 수준이다.

- 총 인구 중 24세 미만의 비중이 51.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25~54세는 38.04%, 55세 이상은 10.26%를 차지한다. 인구성장률은 약 1.41%에 달하며 평균 수명은 약 68.4세 이다.

- 일반적으로 소비재는 고관세로 수입억제정책을 실시하여 수입 품목의 대부분이 기계류, 석유, 화학제품 등 중화학 공업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필품 중 특히 가전제품 등은 상당 부분이 밀수로 들어오거나 여행자 수하물을 통해 시장에 반입되고 있어 실제로 소비재의 해외제품 의존도는 공식 수입통계보다 30% 가량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 소비 성향

- 고소득층은 유럽 선진국의 모델과 스타일을 선호하며 결혼식 등 대외적인 행사에는 이례적일 정도로 거금을 지출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높아 부유층의 경우 특히 남성은 대학 졸업 후 영국 등 선진국으로의 유학을 선호하며, 명함에 이력, 학위 등을 상세히 나열하는 편이다.

- 저소득층에서는 식료품, 의류, 최소한의 가구 등 생활 필수품을 구매하는데 소득의 대부분을 지출하며 디자인, 스타일 등에 크게 구애 받지 않는다. 파키스탄 소비자들은 컬러풀한 제품 및 참신한 디자인의 제품을 선호하나, 가격에는 대단히 민감해 품질보다는 가격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 파키스탄에서는 구매 시즌이 집중적인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수 구매 시기는 이드(EID-UL-FITR, EID-UL-AZHA) 등 이슬람 종교 축제일로 해당기간 중 파키스탄인은 옷과 신발을 새로 구입하고 커튼도 교체하는 등 집안을 단장한다.

- EID-UL-FITR은 이슬람 금식월 라마단이 종료된 후 3~4일간의 연휴를 의미하며, EID-UL-AZHA는 약 2개월 후에 도래한다. (참고: 2019년 라마단 기간 5월 6일~6월 5일)

- 한편 무역정책 발표 시기인 매년 5~6월경에는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입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파키스탄에서는 공업화 추진으로 소비재에 대한 고관세 정책을 추진, 많은 소비재가 밀수나 여행자를 통해 충당되고 있어 가격이 정부의 밀수 방지 및 입국 여행자 검색 정책의 강약에 따라 등락이 심한 편이다.

❑ 한국 상품 인지도

- 파키스탄 바이어들은 한국제품의 품질 우수성을 잘 알고 있고 시장에서 품질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으로 유럽이나 일본 제품의 대체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파키스탄은 대표적 저가 제품 위주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 및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수준이 우리 제품 구매에 가장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 유통 채널

- 파키스탄의 수입 상품 유통은 수입업자, 유통업자, 도소매업자에 이어 최종 소비자에 이르는 경로를 거치게 되며 품목에 따라서 수입업자가 유통업자의 역할까지 수행하기도 한다. 수입업자와 유통업자 그리고 도소매업자 사이의 거래는 주로 상호 간의 신용도에 따라 15일에서 90일까지의 외상 거래에 의존한다.

2.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 상담 요령

- 파키스탄 비즈니스맨들은 가격 협상 시 대폭적인 가격인하를 요구하는 경향이 많으며,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수입 물품의 하자, 혹은 자국 경제 불안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결제 대금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

- 파키스탄 비즈니스맨들은 한국 업체들과 상담을 하면 처음부터 독점 에이전트를 제의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기 분야는 아니더라도 물건을 보면 일단 본인이 취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 더 나아가 합작을 제의하는 경우도 매우 흔하다. 바이어들이 그러한 말을 할 때는 그것이 대개는 그냥 던져보는 말일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특히 독점 에이전트 임명의 경우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 최근에 빈발하고 있는 사건으로는 한국으로의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위장 수입업자들이 한국 업체에 거래를 제의해 오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 위장 수입업자들의 특징은 상담이 본격적으로 진척되기도 전에 1-2회의 연락 후 바로 수십 만 달러상당의 기계를 구매하겠다는 등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다.

- 파키스탄은 일반적으로 다품종 소량 주문 시장이고 가격경쟁력이 관건인 시장이며 바이어들의 가격 협상 능력이 좋은 편이어서 우리 기업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 비즈니스 에티켓

- 파키스탄인의 96%가 무슬림으로 가급적 종교에 관한 논쟁이나 농담은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여성 기업인은 많지 않으나 여성과 상담할 때 악수를 먼저 신청하는 것은 결례이다. 파키스탄은 전통적으로 인도와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인도를 찬미하는 말은 가급적 하지 않아야 한다.

- 상담 시 정장이 바람직하나 현지 기후 여건을 감안, 한여름에는 깨끗한 와이셔츠(긴 팔)에 노타이 차림도 정장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현지 비즈니스맨들은 반팔 셔츠는 거의 입지 않는다. 그리고 사적인 자리라도 반바지를 입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파키스탄인이 가끔은 약속을 할 때 '인샬라'라는 말을 쓰면서 오른손을 자기의 왼편 가슴부분에 갖다 대는 경향이 있는데, '인샬라'는 좋게 해석하면 자기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나쁘게 해석하면 혹시라도 약속을 지키지 못할지도 모르니(알라신의 뜻이므로) 이해해 달라는 두 가지 의미이다.

- 대부분의 무슬림 파키스탄 비즈니스맨이 특별한 의미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왼편 가슴에 자기의 오른손을 갖다 대는 것은 상대에 대한 신의의 표시이다.

- 이슬람교가 국교이기는 하나 사우디 등 중동 국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측면이 있고 특히 외국인에게는 비교적 관대한 편이다.

❑ 계약 체결 시 유의 사항

- 파키스탄의 비즈니스맨은 대개 소위 '인덴터'라고 불리는 커미션베이스의 수입업자로 시작하여 점차 전문화되고 특정 품목의 수입상으로 성장하므로, 상담 시 수입상이 일단 무엇이든 해보겠다고 달려드는 경우는 아직 자금이 부족하고 자기의 특정한 전문 분야가 없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이러한 전문성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

3. 무역, 투자진출 시 애로사항

❑ 가격 위주의 구매 패턴

- 파키스탄의 1인당 GDP는 미화 1,560달러 수준으로 무엇보다 가격이 구매 결정의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한다. 이로 인해 값싼 중국, 동남아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파키스탄 바이어의 가격 협상 능력은 매우 뛰어난 편이다.

❑ 정치/사회 불안

- 1947년 영국으로의 독립 이후 수차례의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였고 과격 이슬람 세력의 테러 활동, 종파 간의 갈등 등 국가 위험도가 상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치, 사회적 불안정은 정부 정책 신뢰도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2008년 이후 파키스탄 북부 국경지역에서 탈레반 등의 무장단체활동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2009년 미국의 오바마 정권 출범 이후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접경지역에 대한 탈레반 소탕작전이 지속됐다. 한편 각 종족간, 이슬람 분파간 분쟁으로 인해 상호 테러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전반적으로 치안이 좋지 않은 문제가 있다.

❑ 열악한 인프라

- 전력, 통신 등 열악한 인프라가 생산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수자원 부족, 낙후된 공업 기술 및 설비로 인한 품질 경쟁력 저하의 문제가 있다. 파키스탄 경제 중심지인 카라치의 경우도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이 대부분이며, 보급된 지역마저도 노후한 수도관 사정으로 수돗물이 오염돼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있기도 했다.

- 특히 전력 부족은 파키스탄의 고질적인 문제로, 일반 가정, 공장의 경우 하루에도 수 차례 정전이 발생하며 계획정전(load shedding)을 실시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잦은 정전과 불안정한 전압으로 인해 전자장비, 기계설비 가동을 위해 별도의 발전기를 구비하는 것이 좋다.

❑ 대금 결제

- 파키스탄 수입업자들은 자국의 높은 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수입 신용장에 대한 언더밸류(under value) 관행(실제가격보다 낮게 세관에 신고하는 관행)이 일반화되어 있다.

❑ 세금

- 진출기업들이 법인세, 소비세 등 법정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외에 물류세 등 자의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Ⅴ. 기타 유용한 정보

❑ 교통

- 버스, 택시 및 오토릭샤(3륜차) 등이 있으나 버스는 대부분 에어컨 시설이 없고 상태가 불량하여 외국인이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릭샤도 공해 및 안전상의 문제로 권장할 만한 교통수단은 아니며 가급적 공항에서는 택시 또는 현지 파트너 업체가 예약한 렌트카를 이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 택시를 이용할 경우, 사전에 목적지와 요금을 협의한 후 이용해야 요금 관련 불필요한 논쟁을 피할 수 있다.

❑ 전화

- 현지에서 한국으로 전화 시는 먼저 국가번호(0082)를 누르고 해당 전화번호를 누르면 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파키스탄에서 국제통화 시 수신자 부담(COLLECT CALL)은 불가능하다.

- 국제전화 시는 통상 2-3회 시도 후 통화가 가능하고 통화 도중에도 접속이 중단되는 사태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시차는 KST 기준 -4시간으로 한국이 24:00인 경우 파키스탄은 20:00 이다.

❑ 식수

- 호텔 등의 수돗물은 식수로 적합하지 않으며 식수용으로는 반드시 믿을 만한 생수를 구입해야 한다. Aquafina, Nestle 등 유명 브랜드 생수를 마시는 것이 좋으며 가급적 양치질도 생수를 활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 관광

- 카라치 시내에 특별히 추천할 만한 관광지는 없으며 카라치 국립박물관이나 파키스탄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고 있는 '지나 묘소(Mazar-e-Quaid)'는 한 번쯤 가볼만한 명소이다.

❑ 환율 : Rs 1 = 약 7.5원 (US$ 1 = Rs 160) *2019년 7월 기준

- 외부 환전소에서 환전 시 유리한 환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은행과 달리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 호텔에서 환전할 경우에는 은행이나 환전소에 비해 달러당 4~5루피 불리하게 환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 전압

- 전기 규격은 50Hz, 220V(산업용 440V)이다. 전압이 불안정하여 200~240볼트 범위를 수용하는 제품이 수명이 오래가며 전압에 민감한 전자제품(냉장고, 오디오, 컴퓨터 등)은 Automatic Voltage Regulator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산업용은 380볼트까지 떨어지기도 한다.

❑ 치안

○ 여행경보 발령 현황
- 여행자제(황색) : 이슬라마바드, 페이살라바드, 라왈핀디 지역
- 여행금지(흑색) : 발루치스탄 지역
- 철수권고(적색) : 황색 및 흑색 경보 지역을 제외한 파키스탄 전 지역

○ 파키스탄 내 테러 유형
- 파키스탄 탈레반(TTP), LeJ, ISIS 등 이슬람 무장단체
- 발루치스탄 지역의 무장분리 독립 세력(BLA/BLF 등)
- 카슈미르 지역에서 인도와의 분쟁 및 테러
- 카라치, 라호르 등 대도시 지역의 다문화/다종족/폭력적 정치문화 등으로 인한 조직 폭력단 및 종파간의 테러·폭력(타깃 킬링)

○ 카라치 범죄 유형(2018년)
- 테러사건 : 4건
- 타깃킬링 : 9건
- 살인 : 1,298건
- 은행강도 : 3건
- 납치(몸값요구) : 38건

○ 경찰작전 수행 결과(2018년)
- 사살(총격) : 1,182건
- 현행범 검거 : 2,206건
- 범죄조직 소탕 : 661건

- 카라치의 치안 상태는 상당히 좋지 않은 편이다. 파키스탄은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철수권고(적색경보) 국가로 설정할 정도로 정치, 종교, 또는 동업자 간의 알력으로 인한 폭탄 테러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공공시설 및 식당 등 주요 장소에서 검문검색이 빈번하다. 호텔에서도 차량 트렁크 및 엔진후드를 열어보고 차 내부나 밑에 폭발물이 있는지 검사 후 출입문에서 검색대를 통과해야 하고 가방도 수색한다.

- 총기 소지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권총강도나 차량 절도 등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이를 피하는 방법은 안전한 지역에 거주하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방법뿐이다. 또한 간혹 현지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보복성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능한 현지인과 불필요한 갈등이나 원한을 유발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외국인은 언제든지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변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중국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테러가 종종 발생되니 중국 총영사관 및 중국 관련 시설물 등에 대한 접근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을 권장한다.

❑ 주요 호텔

○ **Pearl Continental Karachi**
- 주소 : Club Road, P.O. Box – 8513, Karachi, Pakistan
- 전화 : 92-21-3568-5021
- 팩스 : 92-21-3568-1835
- 홈페이지 : http://www.pchotels.com/pckarachi/
- 숙박요금(1박) : US$ 155(세금/조식 포함, 싱글룸 기준 KOTRA 할인 요금)

○ **Pearl Continental Lahore**

- 주소 : Pearl Continental Lahore, Shara-e-Quaid-e-Azam, Lahore, Pakistan
- 전화 : 92-42-111-505-505
- 팩스 : 92-42-3568-1835
- 홈페이지 : https://www.pchotels.com/pclahore/
- 숙박요금(1박) : US$ 130(세금/조식 포함, 싱글룸 기준)

  * 환율에 따라 숙박요금 변동이 심한 편이므로 예약 시 사전확인 필요

○ **Avari Towers Karachi**

- 주소 : 242 Fatima Jinnah Road Karachi, Pakistan
- 전화 : 92-21-111-282747
- 팩스 : 92-21-3568-0310
- 홈페이지 : http://www.avari.com/property/avari-towers
- 숙박요금(1박) : US$ 120(세금/조식 포함, 싱글룸 기준 KOTRA 할인 요금)

  * 환율에 따라 숙박요금 변동이 심한 편이므로 예약 시 사전확인 필요

○ **Movenpick Hotel Karachi**

- 주소 : Club Road P.O. Box 3918 75530 Karachi, Pakistan
- 전화 : 92-21-3563-3333
- 팩스 : 92-21-3563-3185
- 홈페이지 : http://www.movenpick.com/en/asia/pakistan/karachi/hotel-karachi/
- 숙박요금(1박) : US$ 125(세금/조식 포함, 싱글룸 기준 KOTRA 할인 요금)

  * 환율에 따라 숙박요금 변동이 심한 편이므로 예약 시 사전확인 필요

❑ 주요 식당

○ **(양식) Cafe Alyanto 라호르**

- 전화 : 92-42-3575-1886
- 위치 : 12 C1 MM Alam Rd, Block C1 Block C 1 Gulberg III, Lahore, Punjab 54000
- 특징 : 고급 양식당
- 가격 : 1인당 약 30달러 수준

○ (중식) Dynasty 카라치

- 전화 : 92-21-111-282-747
- 위치 : Avari Towers, Fatima Jinnah Road, Karachi Cantonment, Karachi, Sindh 75530
- 특징 : Avari 호텔 내 소재한 고급 중식당으로서 일반 모임과 비즈니스 미팅에 적합함.
- 가격 : 1인당 약 20달러 수준

○ (일식) Sakura 카라치

- 전화 : 92-21-3568-9041
- 위치 : PC Hotel, Club Rd, Civil Lines, Karachi, Karachi City, Sindh
- 특징 : 고급 일식당으로 전망이 좋음.
- 가격 : 1인당 약 40달러 수준

○ (양식) Cafe Flo 카라치

- 전화 : 92-21-3582-0187
- 위치 : D82, 1 26th Street, Block 4 Clifton, Karachi, Sindh 75500
- 특징 : 양식당으로 프랑스식에 가까움.
- 가격 : 1인당 약 40달러 수준

○ (현지식) BarBQ Tonight 카라치

- 전화 : 92-21-111-227-111
- 위치 : block-5, 5/1, Boating Basin, Clifton, Karachi, Sindh 75600
- 특징 : 파키스탄식 바비큐 요리로 유명함.
- 가격 : 1인당 약 15달러 수준

○ (한식) 한식당은 존재하지 않음

❑ 유용한 현지어 표현

- 예 / 아니오 : 하~안 / 네히
- 안녕하세요? : 아쌀람모 알레꿈 *아침/오후/저녁 동일
- 고맙습니다 : 슈큐리아
- 안녕히 계세요 : 구다 하피즈
- 앉으십시오 : 베드자오
- 미안합니다 : 마프 기재가
-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 루끼에

❑ 현지 주요 주재기관 연락처

○ **KOTRA 카라치무역관**

- 주소 : Suite 623, 6th Floor, The Forum, G-20, Block-9, Clifton, Karachi, Pakistan
- 전화 : 92-21-3530-3771
- 팩스 : 92-21-3530-3778
- 홈페이지 : http://www.kotra.or.kr/KBC/karachi

○ **주파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 주소 : Block 13, St. 29, Diplomatic Enclave II, Islamabad, Pakistan
- 전화 : 92-51-3227-9380
- 팩스 : 92-51-3227-9391
- 홈페이지 : http://overseas.mofa.go.kr/pk-ko/index.do

○ **주카라치 분관**

- 주소 : 101, 29th St. Khayaban-e-Mohafiz, DHA, Phase VI, Karachi, Pakistan
- 전화 : 92-21-3585-3950
- 팩스 : 92-21-3534-0054
- 홈페이지 : http://overseas.mofa.go.kr/pk-karachi-ko/index.do

<끝>

www.kotra.or.kr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